



Analyst 김도하 · 02-3773-8876 · doha.kim@sk.com



- ✓ 생손보 12개사, 내년 총 213 억원의 실손보험료 환급 예정
- ✓ '18년 보험료 환급 및 인하는 이미 알려진 이슈
- ✓ 유병자 실손보험의 출시 계획은 오히려 여전히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판단

실손 뉴스 update: 세상은 여전히 실손보험을 원한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실손보험 감리결과에 대해 변경권고 대상 회사명 및 보험료 환급 규모 등을 밝힘 (하단 표 참조). 해당하는 생보 10개사 및 손보 10개사는 변경권고 대상 계약에 대해 2018년 초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므로 이들 계약은 내년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수 있음. 또한 이 중 12개사 (생보 10개사 및 손보 2개사)는 총 28만건의 계약에 대해 213억원의 과다책정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 (연론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180억원 수준, 손보사 20억원 수준)

- 보험료 환급분이 100억원에서 213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점 외에는 이미 발표되었던 내용이며, 특히 손해보험사의 부담분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실손보험 감리결과는 '과다책정된 1%의 계약을 제외 시, 나머지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적정했다'라는 확인에 더 의미가 있었다는 의견을 유지함

-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보도자료를 통해 ①문재인 케어에 따른 수혜만큼 2018년 상반기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②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을 2018년 4월에 출시하겠다고 발표. ①은 지속적으로 언급돼온 것으로 새로운 이슈가 아님. 유병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다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이는 오히려 다양한 국민계층을 대상으로 실손보험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단됨

- SK증권은 내년 초 20%대의 실손보험 위험률 조정이 가능하며,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는 단발성인 데 반해 과거의 보험료 인상은 누적적으로 갱신되므로 주요 손보사의 2018년 말 실손 손해율은 100~1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변경권고 대상 회사 ('18년 초 보험요율 조정 시 인상폭 축소 가능성)	보험료 환급 예정 회사	인당 평균 환급금
생보 10개사 : ABL, KDB, 교보, 농협, 동부, 동양, 미래에셋 삼성, 신한, 한화	생보 9개사 : ABL, KDB, 교보, 농협, 동부, 동양, 미래에셋, 신한, 한화	14.5만원
손보 10개사 : KB, MG, 농협, 동부, 롯데, 메리츠, 삼성, 한화, 현대, 흥국	삼성생명, 삼성화재	11.5만원
	농협손보	6천원

자료: 금융감독원 SK증권
 주: 나열 회사는 가나다순 정렬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